

가자지구 전쟁·후티 반군 홍해 충돌로 중동 경제 '휘청'

국경 봉쇄·홍해 물동량 감소...수에즈 운하 운영 이집트도 재정 위기 요르단 관광객 54% 감소...이스라엘 공장 폐쇄에 실업자 급증 등 심각

가자지구 전쟁, 홍해 충돌 등으로 중동과 인근 북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오랫동안 위기에 처해있던 중동 경제가 최근 전쟁으로 인해 무너질 위험이 커졌으며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제품부터 걸프만의 석유에 이르기까지 중동 국가 전체 수출량의 5분의 1은 여타 무역이 차지했다. 중동 내에서 서로 적대적이었던 국가들도 서로

무역을 점차 늘려가고 있었지만, 전쟁 발발로 인해 수출 경로가 막히면서 여타 무역이 중단됐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특히 친이란 무장조직인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항행 선박들을 공격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후티의 무력 도발이 시작된 이후 세계 무역량의 10%를 담당하던 홍해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기존의 30% 정도까지 떨어졌다.

이는 이미 홍해 연안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리트레아의 경제는 어업·농업·광업 생산물을 홍해를 통해 수출해 유지되고 있지만 이 통로가 마

비됐고 내전 중인 수단 역시 해외 원조를 받는 유일한 통로가 막히는 바람에 현재 2480만명에게 원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운영하는 이집트도 재정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이집트는 지난 한 해 102억 5000만달러(13조 7000억 원)를 벌어들였고, 이는 외환위기를 겪는 이집트의 주 수입원이 됐다.

따라서 수에즈 운하 통항량이 줄어 통항료 수입이 감소하면 현재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들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통항료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

요르단은 전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 침체했다. 하마스의 공격 이후 요르단을 찾는 관광객 수는 54% 감소했다.

관광업 수입 감소로 요르단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경제 충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첨단 기술 분야가 타격을 받아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고객들은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 해당 업계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인력들은 전쟁에 투입됐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레바논 남부가 파괴됐고 레바논에서 5만명, 이스라엘 북부에서 9만6천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들을 복구하려면 돈이 들지만, 경제 위기를 겪는 레바논에는 이를 감당할 자금이 없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로 매일 출퇴근하던 20만명의 공장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공무원 16만명은 전쟁이 시작된 뒤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안지구에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고 공무원들의 대출 상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동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도 나머지 세계 경제에는 그로 인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동의 많은 국가가 채무 위기에 빠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 위기는 특히 젊은층 실업으로 이어지면 정치가 극단화하고, 이러한 파장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관측했다.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의회 건물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빛을 밝히며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반이민 논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독일 곳곳에서 수십만명이 AfD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美 공화당 대선후보 디샌티스 사퇴

트럼프 지지 선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21일(현지시간) 후보를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이로써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졌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나는 오늘 선거운동을 중단한다"며 사퇴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 다수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는 게 명확해졌다"며 "트럼프는 현직인 조 바이든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승자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리틀 트럼프'로 불린 디샌티스 주지사는 2022년 11월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존재감을 키우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주목받았으며 한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트럼프 대항마'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작년 5월 '위대한 미국의 복귀'를 다짐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고전했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사퇴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시간 양자구도가 된 뉴햄프셔 경선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트럼프, 펠로시·헤일리 혼동...정치인 '고령 논란' 재점화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고령 정치인 인지능력 시비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0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밤 뉴햄프셔 토론 행사 도중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국회의장과 여러 차례 혼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 난입 사태를 언급하며 "니키 헤일리가,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모든 정보와 증거를 다 삭제했다"며 "왜냐하면 니키 헤일리가 모든 보안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녀에게 군인과 주방위군을 비롯해 그들이 필요한 대로 1만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다. 그들은 말도 하기 싫어했다. 그들은 아주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의회난입 사태 당시 의회는 펠로시 전 의장이 통

솔하고 있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를 지냈으며, 의회 경력은 전무하다.

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펠로시 전 의장에게 1만명의 병력 지원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하원 특위 조사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근거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헤일리 전 대사는 "80대에 대통령이 되는 이들 2명과 대선을 치르고 싶느냐"면서 "어제 저녁 트럼프는 유세에서 왜 의회 폭동을 막지 않았는지, 왜 사태 당시 더 잘 대응하지 못했는지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나는 1월 6일 사태 당시 워싱턴 DC에 있지도 않았으며 공격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고령 정치인에 대한 인지 능력 시험을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민자 추방 계획'에 항의 나선 독일...25만 명 반극우 시위

정·재계 인사들도 지지 선언

독일 전역에서 연일 대규모 인파가 극우 세력의 반(反)이민 논조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다.

21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독일 곳곳에서 수십만명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전날도 약 25만명이 시위했다.

주최 측은 금요일인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약 100개 도시에서 140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뮌헨에서 열린 시위에는 경찰 추산 10만명, 주최 측 추산 25만명 이상이 참석했다.

수도 베를린의 의회 건물 앞에서도 경찰 추산 최

대 10만명이 모여서 '나치 퇴출'을 외치고 유럽연합(EU) 깃발 등을 흔들었다.

이번 주말 시위는 주요 도시 뿐 아니라 전국 소도시 수십 곳에서도 개최됐다.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반극우 시위가 시작된 것은 지난 10일 탐사매체 코렉티브 보도로 AfD 당원들이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이주민 수백만 명을 독일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이주민 추방을 논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의 고문이자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롤란트 하르트비히, 현직 하원의원 게리트 후이 등 AfD 소속 정치인 4명이 참석했다.

반EU를 내걸고 2013년 창당한 AfD는 최근 독일에 급속도로 퍼진 반이민 정서를 타고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독일 정·재계 인사들은 시위 지지 메시지를 내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협오와 우의 극단주의에 맞서 일어섰고, 적들로부터 우리 공화국과 헌법을 수호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민자들을 쫓아 내려는 계획은 우리 민주주의와 우리 모두를 향한 공격"이라며 "화합, 관용, 민주 독일을 위해 모두 일어서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담양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